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2년 6월 23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: 기술인재팀 신성필 과장, 이남용 사무관(02-2110-5193)	

유레카, 유럽과의 기술협력 채널로 자리매김

-한국의 유레카 준회원국 지위 갱신-

□ 지식경제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6.22일 헝가리, 유레카의장국이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한 **제26차 유레카 장관급 각료회의**에서 **'한·유레카 파트너쉽 갱신 협정'** 체결에 서명

【 유레카 장관급 각료회의 】

유럽 40개 회원국 각료들이 유레카 중장기 발전방향, 신규 프로젝트 승인, 신규 회원국 가입 등을 결정하는 최고위 R&D 합의기구로 의장국 담당장관이 (제26차 각료회의는 헝가리 주최) 각료회의의 수장으로서 역할

* 유레카: '85년 유럽 18개국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한 범유럽 공동 R&D 네트워크』로 유레카총회(연 4회)에서 신규과제 승인 및 유레카 기술개발방향 결정

* 유레카 정회원국(40개국) : EU 27개국 + 터키, 스위스, 노르웨이 등 13개국
  - 제26차 회의에서 몬테네그로가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

□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유레카 준회원국 지위를 연장하는 것으로 국내 산·학·연은 향후 **3년간 유레카 회원국과의 공동 R&D 프로젝트**를 계속하여 발굴할 수 있게 되었음

【 유레카 준 회원국 의의 】

- 준 회원국은 유레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가능
- 국내 산·학·연이 주도하여 유레카 프로젝트 발의, 컨소시엄 구성,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 유럽과의 수평적 기술 협력체계가 가능

□ 앞으로 국내 산·학·연은 유레카의 광범위한 R&D 및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원천기술 습득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됨

【 기대 효과 】

① 신상품 출시 前, R&D 단계부터 한국과 유럽의 산업체간 제휴가 활성화됨으로써 향후 **한·유럽간 무역·투자 확대**

② IT, BT, N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이 각자의 강점기술을 융합함으로써 **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**

③ **우량 중소기업 육성, 산·학·연 클러스터 활성화** 등 한국과 유럽이 동시에 직면한 산업 정책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

붙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경과 및 참여현황

참고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경과 및 참여현황

1. 유레카 개요

○ '85년 유럽 18개국이 미국에 대응해 중소기업 중심의 **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**을 목표로 설립

○ 현재 40개 정회원국으로 구성된 **『범유럽 공동 R&D 네트워크』**이며, **유레카총회**(연 4회)에서 **신규과제 승인** 및 유레카 기술개발방향 결정

* 특징 : 상향식 과제구성(Bottom-up)을 통한 자발적 산학연 협력 촉진하고, '85년 이래 유레카 총 4,198개 프로젝트(약 45조 규모) 진행

2. 그간의 한국-유레카 관계

○ '05년부터 **65개 산·학·연이 34개 프로젝트**에 참여 중('05~'12.04간 총 203억원 정부투자), 특히 2009.6.19일 **준회원국**으로 가입

* 준회원국 가입 의미: 국내 산·학·연의 컨소시엄 구성 및 프로젝트 발의 등 주도적 활동이 가능해지며,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 획득

< 한국과 유레카간 협력의 특징 >

◈ **단기간(7년)**에 **폭넓게(40개 회원국, 375개 기관)** 네트워크 구축

◈ **중소기업(韓)-중소기업(유레카)**간 협력 활발

[한국의 참여기관] **중소기업(38)**, 대기업(3), 대학(17), 연구소(6), 기타(1)
[회원국의 파트너] **중소기업(164)**, 대기업(88), 대학(72), 연구소(49), 기타(2)

◈ 우리나라 **강점분야(IT)**에 집중적(79%)으로 참여
[기술분야별 프로젝트수] **IT(27)**, BT(2), 환경(2), 에너지(2), 기계소재(1)

○ '10년부터 국내기관의 유레카 참여 확대 및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매년 **EUREKA Day 개최** (3회: '12.3.21~23 벨기에 브뤼셀)

○ **매년 5~10건**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레카 예산 증가

* 유레카 예산: ('09) 25억원 → ('10) 50억원 → ('11) 73억원 → ('12) 77억원

3. 준회원국 지위의 의미

○ 국내 산·학·연의 유레카 **프로젝트 발의, 컨소시엄 구성** 등 주도적 활동이 가능해지며, 각종 회의에서 **발언권·평가권 획득**

< 유레카 멤버쉽 비교 >

구 분	정회원국	준회원국	비회원국
프로젝트 발의	가능	가능	불가
프로젝트 평가	가능	가능	불가
프로젝트 승인	가능	불가	불가

4. 국내 참여현황

< Overview >

○ 정부투자액 : 203억원('05~'12.04)
○ 프로젝트수 : 총 34건
○ 참여기관수 : 440개 (한국측 : 65개, 유레카측 : 375개)

【 한국의 유레카 참여현황 】

(단위 : 억원, 건, 개)

년도	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합계
예산		10	5	10	25	25	50	73	5	203
프로젝트수		-	3	7	4	4	6	9	1	34
참여기관수		-	35	60	46	85	50	140	4	420
	한 국 측	-	5	14	9	6	8	22	1	65
	유레카측	-	32	52	42	81	44	121	3	375

* 프로젝트수는 년도별 예산을 기준으로 함

□ IT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참여
※ 과제유형 IT : 27건, BT : 2건, 환경 : 2건, 에너지 : 2건, 기계소재(자동차) : 1건

□ 중소기업 위주의 참여
※ 참여기관 유형 : 중소기업(38개), 대학(17개), 연구소(6개), 대기업(3개), 기타(1개)

□ 주요 30여개 회원국과 협력
※ 주요 국가별 협력기관수

국가명	체코	이집트	핀란드	프랑스	독일	아일랜드	이스라엘	리투아니아	네덜란드
참여기관	9	16	42	65	30	6	8	10	13
국가명	포르투칼	슬로베니아	스페인	스웨덴	터키	러시아	벨기에	오스트리아	이탈리아
참여기관	7	12	71	6	17	4	5	4	3

※ 그 외 스위스, 불가리아 등 유레카 회원국의 협력기관과 과제참여